

번호: PO-EP-008					
제 목	한국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상과 빈혈과의 관련성 연구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 and anemia in the Korean elderly				
저 자 및 소 속	김은경1), 우은경1), 박민규2), 한창수2), 박문호2), 최주연2), 안상미1), 조인호1) 1)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학부, 2)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인건강연구소 Eunkyung Kim1), Eun Kyung Wool1), Min Kyu Park2), Chang Su Han2), Moon Ho Park2), Ju-Yeon Choi2), Sangmee Ahn Jo1), Inho Jo1) 1)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, National Institute of Health, 2) The Geriatric Health Clinic and Research Institute (GHCRI), college of Medicine, Korea University				
분 야	역 학 [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목적: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 또한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.4%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. 노인집단에서 임상적으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15-20% 정도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는 한국노인을 대표할만한 대단위 표본추출을 통해 노인의 우울증상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화학적 요인을 조사하였다.</p> <p>방법: 연구대상으로 정한 3,000명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60~84세의 노인 36,735명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15,39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. 2002년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여러 가지 노인건강조사 (우울정도의 판단기준인 Geriatric Depression Scale (GDS)와 설문조사 등)를 수행하였으며, 2,767명이 그 조사에 응하였다. 이들 중 무작위로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900명에게 혈액 검사 등 다양한 2차 follow-up조사를 실시하였다.</p> <p>결과: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GDS와 혈액검사 모두를 응한 사람 874명이다. 우울증상의 유무를 GDS점수 18점을 기준으로 한다면, 우리나라 노인의 26.8%는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, 조사 대상 여성의 31.6%가,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33.0%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다. 또한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($p<0.05$). 두 집단의 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,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집단은 빈혈과 관련된 헤모글로빈, 헤마토크릿, 적혈구 수, 평균적혈구용적의 수치가 정상집단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($p<0.05$). 헤모글로빈수치를 기준(남자<13.0 g/dl, 여자<12.0 g/dl)으로 우울증상과 빈혈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, 우울증상집단 (23.9%)이 정상집단(18.0%)에 비해 빈혈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($p=0.0613$). 또한 다변량회귀분석을 통해 우울증상과 관련된 성별, 배우자여부, 교육년수를 보정했을 때에도 빈혈이 있는 노인은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이 있을 위험비가 유의적으로 1.5배 높게 나타났다.</p> <p>결론: 노인에게 있어서 빈혈과 우울증상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서 빈혈은 우울증상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.</p>					